



2026.09.30 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

폭풍 전야의 줄다리기 : 거시적 압박과 미시적 동력의 대립

Report Generated: 2026-09-30T23:06 KST | Type: Executive Night Briefing

10/1 Super Thursday 대기

미 PCE(예측 0.3%) 및 GDP 발표
앞두고 미 증시 3대 지수
완벽한 0.00% 보합.

고금리/고유가의 귀환

미 10Y 5.238% (+5bp)
30Y 장중 5.6% 돌파
WTI \$90.39

최종 전략

방어적 관망 유지 (PCE 이전)
→ 반도체 중심 선별 접근 및
금(Gold) 헤지 병행 (PCE 이후)

국내 증시 디커플링

코스닥 역행 강세 (+0.72%)
일본 닛케이 급등 (+1.94%) 등
아시아 기술주 랠리.

불안의 도피처

금 \$500 (+\$18)
비트코인 \$67,350 (+\$1,240)

KOSPI (하방 압박)

6,838.04 (-0.48%) / 3일 연속 하락

- **수급:** 분기말 수급 부담, 외인/기관 2.8조 원(외인 2.3조) 대규모 순매도.
- **동인:** 장기금리 상승 부담 및 대형 이벤트(마이크론 실적 등) 앞둔 경계감. 대형주 위축.

KOSDAQ (상승 모멘텀)

855.91 (+0.72%) / 850선 안착

- **수급:** 개인 2.5조 원 순매수 (롤러코스터 장세 방어).
- **동인:** AI 및 반도체 모멘텀 지속. 중소형 기술주 중심의 강세.

**거시 경제의 무게를 견디는 대형주 vs
미래 성장 기대로 달리는 기술주의 극명한 디커플링 현상.**

시총 상위 주요 종목 온도차

반도체 엇갈림

삼성전자 269,500원 (-1.10%)

VS

SK하이닉스 1,783,000원 (+1.02%)

방어주 선방

삼성바이오로직스 (+0.65%),
LG에너지솔루션 (+0.85%),
POSCO홀딩스 (+0.82%)

자동차 약세

기아 (-2.07%),
현대차 (-0.86%)

기계
(+1.98%)

서비스업
(+1.89%)

제조업
(+1.50%)

의약품
(+0.94%)

제조업
(+1.50%)

운수장비
(-1.71%)

음식료품
(-1.05%)

전기가스업
(-0.70%)

기계, 바이오, 그리고 SK하이닉스. 짙은 관망세 속에서도 펀더멘털을 갖춘 섹터는 붉게 타오르고 있다.

거대한 불확실성: PCE/GDP 대기

IPO 투심의 양면성

상장 강행

AI 화재예보 '로제AI', 두산
자회사 '하이엑시엄' IPO 착수

상장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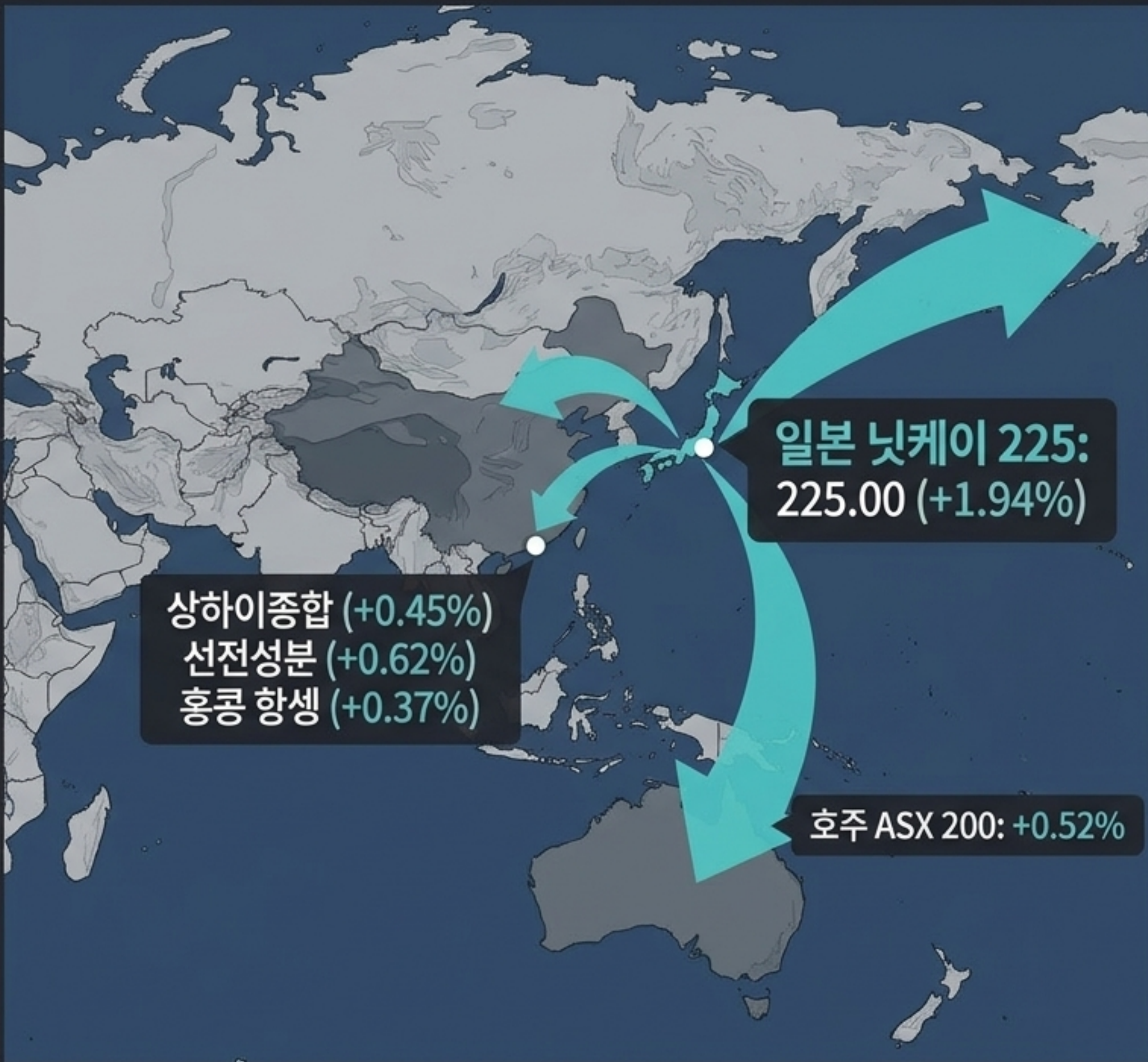
스마트링 '오우라',
증시 불확실성을 이유로
상장 하루 전 전격 연기

S&P 500: 7,670.84 (+0.00%)

NASDAQ: 26,820.38 (+0.00%)

DOW: 51,416.96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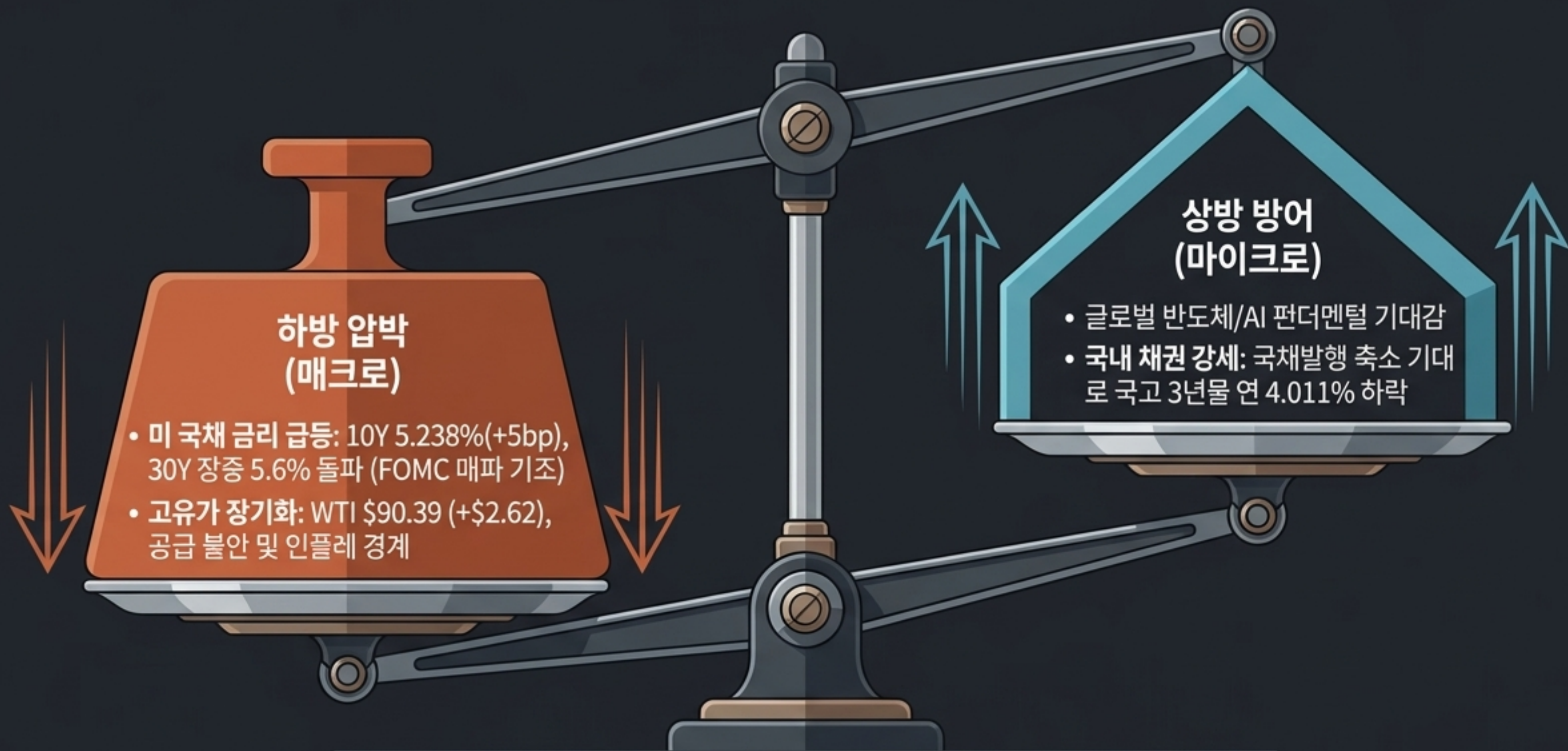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의 극단적 횡보 마감. 부동산(+7.42%), 에너지(+2.00%) 반등 외 유틸리티(-1.70%) 등 대다수 관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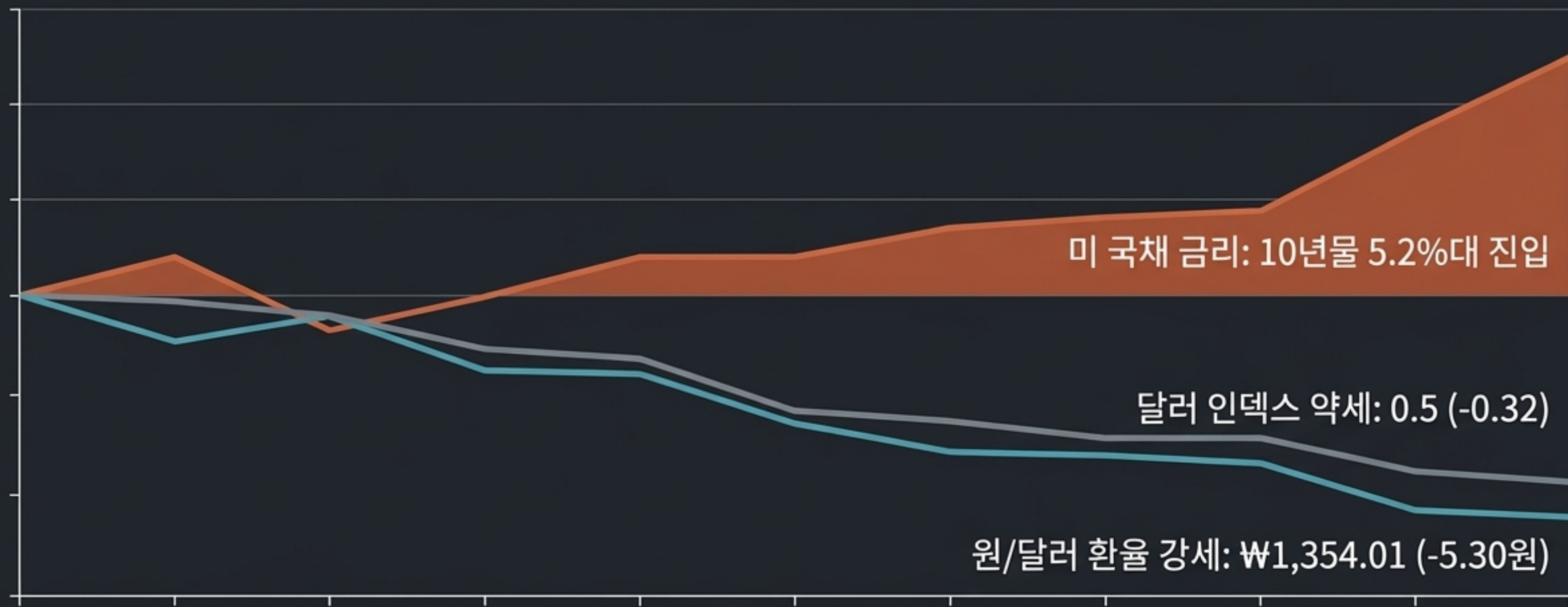
아시아 기술주 랠리

“엔화 약세 + AI 랠리 기대감”

미국의 눈치를 보는 대형주와 달리,
아시아 지역 내 기술주와 수출주는
환율 효과를 등에 업고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형성.



고금리와 고유가가 주식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짓누르고 있으나,
AI 성장 동력이 하락폭을 제한하는 완벽한 역학적 교착 상태.



자본 이동의 엇갈림 (FX & Yield)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로 장기 금리는 오르지만, 글로벌 환율 시장은 달러 약세에 동조하며 유로화 및 신흥국 통화(원화) 강세 쪽으로 자본을 재배치 중.



전통적 피난처 (Gold)

금(XAU) \$500 (+\$18)
롤러코스터 장세를 피해 지수연동예금
및 금 실물 수요 반등 뭉치돈 유입.

고유가·고금리 하에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도
주식 시장의 횡보를 피하려는
자금들의 강력한
'안전자산 동반 강세' 시그널.

신흥/대체 피난처 (Digital)

비트코인(BTC) \$67,350 (+\$1,240)
ETF 순유입 지속과 리스크 헤지 수요
가 맞물리며 강력한 반등.

10/1 (목) - The Catalyst (슈퍼 목요일)

9/30 (수) - 파월
등 연준 인사 발언

- 21:30 미 Core PCE Price Index (예측 0.3%) / PCE Prices (예측 5.3%)

→ 금리 경로 결정의 최대 변수.

- 21:30 미 GDP (예측 1.5%)
→ 경기 침체 여부 가늠자.

- 21:15 ADP 비농업 고용 변화 (예측 73K)

- 한국 소매판매 및 산업생산, 중국/일본 PMI 대거 발표.

10/2 (금) & 10/6 (화)
- 유로존 실업률 등

모든 길은 10월 1일 밤 21시 30분으로 통한다.

촉매제/이벤트:

10/1 PCE & GDP 대기
(극단적 관망 심리 유발)

매크로 하방 압력:

미 10Y 5.2% 돌파, WTI \$90대
(인플레이션 및 밸류에이션 압박)

안전자산 헤지:

금(\$500), 비트코인 급등
(변동성 이탈 자금의 흡수)

마이크로 상방 모멘텀:

코스닥 및 아시아 기술주, AI 모멘텀
(미래 성장 기대감)

마이크로 상방 모멘텀:

코스닥 및 아시아 기술주,
AI 모멘텀
(미래 성장 기대감)

**Zero
Movement**

(완벽한 0.00% 보합)

증시의 보합(0.00%)은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상/하방 압력이 정면충돌하여 만들어낸 '폭풍 전야의 응축 상태'이다.

Tactical Action Playbook

Step 1. 단기 (10/1 이전)

방어적 관망
(Defensive Hold)

PCE 지표 확인 전까지 무리한
포지션 확대 자제.
대형주 중심의 분기말 매도
수급 소화 대기.

Step 2. 중기 (지표 확인 후)

선별적 반도체 접근
(Selective Tech Play)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시,
글로벌 AI 랠리에 동조하며
방어력을 입증한 SK하이닉스 등
핵심 기술주 중심 비중 확대.

Step 3. 포트폴리오 (상시)

금(Gold) 헤지 병행
(Strategic Hedging)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발
리스크에 대비하여,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Gold) 비중
확대를 통한 리스크 헤지 유지.

**불확실성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이다. 10월 1일의 데이터를
확인한 후, 응축된 에너지가 향하는 곳으로 신속히 자본을 재배치하라.**